



3면

공수처 공식 출범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코로나19 확진 판정 어느덧 1년

‘청정지역’ 전북도내 확진자 1000명 넘어서

전북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20일) 밤 기준으로 1,000명을 넘어서

다. 21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지역 내 총 누적 확진자는 1,002명(전국 1.36%)이다.

지난해 1월 31일 전북지역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54일 만에 1,000명을 넘어선 것이다.

20일은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고, 오는 31일이면 전북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전북은 지난해 1월 31일 군산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1호 확진자는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추정되는 중국 우한에 머물다 귀국했다.

1호 확진자는 자신이 우한을 다녀온 사실을 군산시와 군산시 보건소에 신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2월부터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대구 구와 경북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이뤄졌다.

전주에서도 대구를 방문하고 돌아온 20대 남성이 양성판정을 받으며, 전북 2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북도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대구 신천지 발, 8.15 집회 발 등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절한 방역 대응으로 1, 2차 유행까지 ‘청정 지역’을 유지했다.

11월 중순까지 일일 평균 0.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확진자 발생 추이를 이어갔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된 11월 중순 들어 감염모임, 연말 모임 등 소모임들이 증가해 확진자가 급증하게 됐다.

또한, 요양·종교·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감염을 중심으로 3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 연말부터 확진자가 급증했다.

지난해 1월 31일, 군산 중국 우한 여행자 첫 확진

10월까지 166명에 불과
요양 등 집단시설 감염
중심으로 3차 유행 시작
지난 연말부터 확진자 급증

올 들어 일일 평균 8명으로
환자 발생 추이 감소

연말에 확진자가 급증한 이유는 집단 감염 때문이며, 주로 요양시설, 병원, 종교시설 등에서 집중됐다. 집단감염 발생은 ▲순창요양병원(누적 111명) ▲김제 가나안요양원(100명) ▲익산 원광대병원(58명) ▲정읍 양지마을(44명) ▲현대차 전주공장(33명) ▲전주 소재 교회(28명) ▲남원 소재 병원(23명) ▲익산 소재 교회(20명) ▲익산 소재 어린이집(20명) 등으로 분류된다.

이 밖에도 학교, 의료기관, 학원, 기도원, 교회 등에서도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김장, 연말 모임 등 사적 관계에 의한 집단 감염 사례도 이어졌다.

21일 현재까지 지역별 확진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 236명, 익산 190명, 군산 150명, 순창 121명, 김제 93명, 정읍 41명, 남원 39명, 완주 29명, 고창 11명, 부안 7명, 진안·임실 각 3명, 무주·정수 각 1명, 기타 77명이다.

월별 확진자는 지난해 1~10월 166명, 11월 177명, 12월 502명, 1월(21일 현재) 157명이다.

1월부터 10월까지 166명에 불과했던 확진자는 11월에 10개월간의 총 누적치를 넘어섰고 12월에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50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전북도는 방역 당국과 도민들이 협력해 어려운 상황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

그 결과, 현재 전북의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55.14명으로 전남(37.11명), 세종(50.54명), 경남(54.53명)에 이어 전국(142.57명)에서 4번째로 낮은 상황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올해 들어 일일 평균 8명으로 환자 발생 추이가 확연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확산 정도를 가능할 수 있는 감염 재 생산지수도 주 평균 0.8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요양시설, 의료기관, 종교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언제든 확진자 발생이 폭발할 수 있음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 의료과장은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에 동참해 준 도민들에 대한 감사함이 가장 크다”면서 “전국이 1일 생활권인 상황에서 다양한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강 과장은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집단 면적이 형성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10~11월 예상) 그때까지는 그간 잘 지켜주셨던 방역수칙을 생활 속에서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과장은 “코로나19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개인 한명 한명이 방심하면 언제든 다시 심각해 질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경미한 증상 발생 시 즉시 검사 등 3가지를 철저히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유효상 기자



국산 1호 레몬 '제리몬' 열매 수확

21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재배지에서 연구원이 국산 1호 레몬 품종인 '제리몬' 열매를 수확하고 있다. '제리몬'은 외국산 레몬을 대체하기 위해 2019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품종으로 지난해부터 농가에 모종을 보급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거법 개정 전북선관위, 운용기준 마련

확성기·선거운동 목적 집회·대가 제공 등은 안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운용기준을 마련했다. 21일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돼 관련 운용기준을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했다.

이번 운용기준 안내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기준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육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해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할 수 없다. /유효상 기자

“교원성과급제 폐지하라” | 전교조 전북지부 “교육공동체 간 갈등 초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북지부)는 교육공동체 간 갈등을 초래하는 교원성과급제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전북지부는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성과급제는 대표적인 교육 적폐”라며 “교육감 공약요구안 중 가장 중점을 뒀던 추진해야 할 정책 1순위로서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교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성과급 제도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교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기가 저하된다’, ‘현재보다 차등 폭

을 줄여야 한다’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에 이들은 “차등 성과급은 철저히 폐기”라고 말했다.

한편, 교원성과급제는 교직 사회의 경쟁을 유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2001년 도입해 20년 동안 시행해 오고 있다.

이리 부총총 교사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교사들은 수업과 방역을 모두 감당하면서도 교육과 학교의 본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 6학년 담임으로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추억인 졸업식을 유튜브로 진행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더불어 그는 “교원성과급제는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줄 세워 3등급을 매기는 제도 앞에서 교사의 자존감은 떨어졌다”고 하소연했다.

전북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교사들이 모두 각자 위치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의 정도를 일률적으로 평가해 차등을 둔다면 학교 현장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만 키울 뿐”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교원 성과급제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